

동학과 한국사상에서 근대를 다시 생각하다

—실학의 ‘지구개벽’과 동학의 ‘후천개벽’을 중심으로—

일본 텐리대학(天理大學)
야규 마코토(柳生眞)

1. 근현대사회의 위기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개벽’ 사상을 통해 근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롭고 중요한 시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J. Crutzen, 1933-2021) 등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 시대를 뜻하는 ‘인류세(Anthropocene)’를 제창했다.¹⁾ 이 개념은 주로 ‘지구의 한계들(Planetary boundaries)’과 ‘대가속(Great Acceleration)’이라는 두 가지 큰 가설에 입각한다. 이 개념이 제안된 지 15년이 지난 2024년 3월, 국제지질과학연합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던 국제층서위원회(國際層序委員會) 제4기 층서(層序) 소위원회는 인류세를 지질학적 연대로 인정할 제안을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하지만 ‘인류세’ 담론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문적 및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염, 호우 등 기후변동의 영향이 눈에 띄게 발생하면서 지구적 규모의 대규모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추세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특히 2025년 현재의 제2기)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불필요한 지출”, “기후에 관한 과도한 경종(climate alarmism)”이라고 비판했다. 화석연료 산업의 추진과 정부 구조조정을 우선하는 정책의 하나로 NOAA(미국연합 해양대기청), NASA(미국 항공우주국), EPA(환경보호청) 등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학기관을 겨냥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자국(민) 중심주의와 반세계주의·반이민·배외주의의 움직임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종주의·여성혐오·반LGBTQ와 같은 반다양성(反多様性), 반평등(反平等) 풍조나 백신 등에 대한 반대, 음모론도 성행하고 있다.

무사시노 대학(武蔵野大學) 가라스야 마사유키(烏谷昌幸) 교수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극우화나 음모론 확산 등의 배경에 사람들의 박탈감이 있다고 지적한다.²⁾

1) 크뤼첸은 2000년 2월 23일에 멕시코의 쿠에르나바카에서 개최된 지구권·생물권 국제협동연구회의(IGBP) 제15회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홀로세(Holocene, 충적세<沖積世> 또는 현세<現世>라고도 함)에 관한 발언을 들으면서 ‘홀로세’라는 말이 현대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했다. 홀로세는 17,000년쯤 되는데 석기시대와 인류의 영향이 전 지구에 미치게 된 현재와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홀로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인류세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만장의 참가자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열띤 논의를 시작했다. 엄청난 반응에 놀란 크뤼첸은 나중에 인류세의 말을 먼저 사용한 스토머(Eugene F. Stoermer, 1934~2012, 미국의 생물학자)를 알게 되었다. 크뤼첸은 바로 스토머에 연락하면서 2000년 5월의 IGBP 소식지에 공저 논문을 발표했다.

2) 참조:

https://wpb.shueisha.co.jp/news/society/2025/09/02/128165/?fbclid=IwY2xjawNFf7tleHRuA2FlbQlXMQBicmlkETFnd3VPZXlCblljSFJFSUpwAR6hHl62cjbL2qjQ5Yzs8-uj6myZr-BZnHSP2JXLRPVbR58NU3_Mfw2QQGuth

그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 빼앗긴다는 위기감이나 공포심을 말하고,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자도 많은 미국의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는 비백인의 이민이 증가함으로써 백인 사회가 누렸던 우월적인 입장이 상실된다는 박탈감이 있어 그것이 인종차별적인 음모론과 결부되었다고 한다. 가라사야에 의하면 이러한 박탈감은 미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국력이 갈수록 쇠퇴하는 가운데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우선 중산층으로부터 몰락하기 시작한다. 그때 까지 누렸던 재산이나 지위, 생활의 안정을 잃고 몰락하는 중산층이 심한 박탈감을 품고 그 이유와 '범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음모론에 쉽게 끌리게 된다고 한다.

거꾸로 모종의 영향력자나 극우 정치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박탈감에 호소하면서 지지를 모으고, 그 언행이 많은 반발과 비판을 받고도 그것을 “부당하게 보호받고 이익을 누리는 기득권자들에 대해 과감하게 공격하고 그 기만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 기득권층의 저항 세력이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라는 식의 줄거리에 바꿔치기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지자들의 지지와 믿음이 강화되기도 한다.

즉 오늘날 인류의 활동은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기후변동 등으로 누구의 눈에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 특히 상대적 빈곤화하는 중산층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일반사회에는 그 의의나 효과를 알기 어려운) 과학적 연구나 여성·이민·성소수자 등의 약자·소수자에 의해 자기들의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자기들에게 친숙했던 '옛날의 미풍양속' '전통적인' 사회가 잠식되고 있다는 박탈감을 안게 된다. 음모론 영향력자나 극우 정치인·종교 극우파 등은 그러한 부정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을 선동·동원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대립을 악화시키거나 과학 연구 등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국 중심주의, 성차별주의, 배외주의나 자연 파괴, 음모론, 반지성주의 등 근대의 부정적 부분이 다시 힘을 얻게 되지만, 인간의 자유나 평등한 권리, 과학적 사유와 같은 근대의 긍정적 측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2. 최한기·홍대용의 지구개벽

이와 같은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근대사상가들이 제시한 '개벽(開闢)' 사상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수운 최제우(水雲崔濟愚, 1824-1864)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³⁾”라고 하였고, 해월 최시형(海月崔時亨, 1827-1898) 또한 “대신사(大神師) 항언(恒言)하시되 차세(此世)는 요순공맹(堯舜孔孟)의 덕(德)이라도 부족언(不足言)이라 하셨으니 현시(現時)가 후천개벽(後天開闢)임을 이름이라⁴⁾”라고 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새 시대나 세계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개벽'이라는 용어는 유독 동학 또는 신종교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운과 거의 같은 시대에 살던 실학자 해강 최한기(惠岡崔漢綺, 1803~1879)도 '개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무릇 천하가 두루 통하게 된 일이 바로 이때, 대명(大明) 홍치(弘治) 연간(年間)에 있었다. 유럽의 서쪽 바닷가 나라인 포르투갈 사람(布路亞國人) 가노(嘉奴)가 처음으로 한 바퀴 지

A_aem_aX188-Owvz-MDkUkZlAWIQ

3)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4) 『海月神師法說』, 「其他」

구를 돌았는데 이것이 곧 천지의 개벽(開闢)이었다. 그 이후 상선은 두루 다니게 되면서 사신과 무역상을 차례로 보내고 진이(珍異)한 물산과 편리한 기계(器械)를 원근에 전파하고, 예속(禮俗)과 교문(敎文)은 멀리 전파하고 말하는 자(爲播越傳說者)들이 부연(附演)한 바, ‘성안의 젖(城內之乳)’이 아님이 없었다.⁵⁾

최한기는 포르투갈의 가노라는 사람이 지구를 처음으로 일주한 것을 가리켜 “천지의 개벽”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노’란 16세기의 항해사, 탐험가인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Juan Sebastián Elcano, 1476-1526, 델 카노<del Cano>라고도 함)를 가리킨다. 그는 애당초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영]/Fernão de Magalhães[포], 1480-1521)이 이끄는 원정대의 한 선장이었다. 그러나 마젤란은 필리핀 막탄섬에서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이다 영주 라푸라푸에게 죽임을 당했다. 엘카노는 원정대 생존자들을 이끌고 간신히 필리핀제도를 빠져나가 1522년 9월에 스페인으로 귀환했다. 스페인 왕은 지구 일부의 공적을 기리며 엘카노에게 은을 부어 만든 작은 지구를 하사했다.⁶⁾

다만 최한기의 기록에는 부정확한 점이 있다. 우선 엘카노는 스페인 출신의 바스크인으로 원래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다. 이는 아마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마젤란 함대의 항해 기간은 1519년부터 1522년까지인데 이는 중국의 명나라 정덕(正德) 14년부터 가정(嘉靖) 원년에 해당하고 홍치(弘治) 연간과 무관하다.⁷⁾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온 일을 가리켜 최한기가 천지의 ‘개벽’으로 보았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최한기에 의하면, 그 이후 지구의 동서 남북이 뻗길로 뻗어지면서 물산과 사상·문화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나라 안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사상적으로도 풍요롭게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화(地球化)되는 전환점을 ‘천지의 개벽’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그리고 최한기에게 ‘개벽’이란 단지 지구를 일주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류가 지구(대지가 둥글다는 것)를 알게 된 것 자체가 개벽이었다. 최한기의 개벽은 말하자면 지구개벽(地球開闢)이라고 할 수 있다.

지극하도다, 지구의 논(論)이여! 천지의 정체를 밝히고 천고의 긴 밤을 흰히 밝혔도다.⁸⁾

서양에서는 지구설(地球說: 대지 구체설) 자체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존재하고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기원전 4세기의 천문학자인 크니도스의 에우독소스(Eúdoxos ho Knídios)가 주장했다고 한다.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인 수학자, 천문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기원전275-기원전194)는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다. 그 후, 지구설은 오랫동안 이론상의 가설이었으나 마젤란과 엘카노의 지구 일주 항해를 성사함으로써 이것이 실증되었다.

5) 『神氣通』 卷1, 「天下敎法就天人而質正」, :蓋天下之周通. 粵在大明弘治年間. 歐羅巴西海隅. 布路亞國人. 嘉奴. 始圖地球. 是乃天地之開闢也. 自茲以後. 商舶遍行. 使价遞傳. 物產珍異. 器械便利. 傳播遐邇. 禮俗敎文. 爲播越傳說者. 所附演. 無非城內之乳也.

6) 『推測錄』 卷6, 「海舶周通」, :正德以前. 有葡萄牙人. 名嘉奴者. 稟請發船五隻. 東行旋繞至西. 周地而返. 返之日. 王賜以銀鑄小地球. 上刻字云. 始周地而旋者. 其嘉奴乎.

7) 다만, 홍치(弘治) 연간에는 1488년(홍치 원년)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olomeu Dias)의 희망봉 발견, 1492년(홍치 5년)에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영]/Cristoforo Colombo[이])의 신대륙 도달, 1492년(홍치 11년)에 바스쿠 다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도달 등 ‘대항해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최한기가 혼동한 가능성도 있다.

8) 『推測錄』 卷2, 「地球右旋」: 至哉. 地球之論. 明天地之正體. 晝千古之長夜.“

다만 서양인들은 일찌감치 대지가 둥글을 논증하고 실증했으나 대항해 시대,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정복해야 할 대상, 영토화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을 뿐, 지구를 철학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지구, 다시 말해 우리가 서 있는 이 대지가 둥글다는 것의 사상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일찌감치 대지가 둥글을 알아차린 서양인보다 오히려 조선의 실학자들이었다.

가령 담헌 홍대용(湛軒洪大容, 1731-1783)은 지구의 설에 따라 『의산문답(鰲山問答)』에서 거인 실옹(實翁)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하였다. 러시아(鄂羅)와 캄보디아(眞臘)는 서로 스스로 정계(正界, 바로 서 있는 세계)로, 상대방을 횡계(橫界, 가로 서 있는 세계)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과 서양은 서로 스스로 정계로, 상대방을 도계(倒界, 거꾸로 서 있는 세계)로 보고 있으나 기실 땅 위에는 횡계도 도계도 없고 모두 정계이다. 이것은 지구의 설에 근거하는 한 그 어디든지 세계의 중심(정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이사상(華夷思想)을 상대화하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사물로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들을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다.⁹⁾

즉 홍대용은 어느 나라 사람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그것과 벗어난 그릇된 것으로 보기 마련인데, 지구의 시좌에서 보면 모두 바른 자리에 서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도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사물)이 귀하고 사물(사람)은 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두 똑같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즉 홍대용은 대지가 둥글다는 점에서 미루어 그 어디에도 중심과 변방은 존재하지 않으나, 또 어디서나 무엇이든 중심일 수 있다는 탈자기중심(脫自己中心)·범중심적(汎中心的) 사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후배 세대인 최한기도 아마도 그런 시각을 계승하면서 홍대용의 시대보다 더 앞선 서양 천문학·지리학을 수용했다. 또 최한기는 『지구전요(地球典要)』에서 지구상의 밤낮, 계절, 기후, 날씨, 밀물과 썰물 등이 모두 천체의 운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이나 달과 같은 다른 천체와의 상호작용이 지구상에 다양한 환경 변화를 불러오고 인간은 그러한 지구 환경 속에서 태어나 각국의 문화, 산업, 국정, 사상과 역사를 키워왔다. 최한기는 지구와 지리에 관한 정밀한 이해가 있어야만 기(氣)의 운화(運化)를 깨달게 되며, 기화를 깨달았을 때 인도(人道)를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의 도지(圖志)를 밝히려는 자는 반드시 일통(一統)의 요령(要領)을 얻어야 크고 작은 사무에 모두 통할 수 있고, 또 순역(順逆)·이합(離合)을 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기화(氣化)를 들어서 네 가지 문(門)과 여러 조목을 나눠서 정했다.”¹⁰⁾ 최한기는 『지구전요』에서 당시의 세계 각국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기화생성문(氣化生成門), 순기화지제구문(順氣化之諸具門), 도기화지통법문(導氣化之通法門), 기화경력문(氣化經歷門)의 네 ‘문’에 속하는 다양한 조목들을 세웠다.

氣化生成門: 疆域 · 山水 · 風氣 · 人民(戶口額數) · 物産

順氣化之諸具門: 衣食 · 宮城 · 都 · 文字 · 農業 · 商(市浦 · 旗號) · 工 · 器用(錢 · 船 · 財

9) 『鰲山問答』: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10) 『地球典要』凡例, “明天下之圖志者. 須得一統要領. 可以通悉鉅細事務. 又可辨別順逆違合. 故特舉氣化. 分定四門及諸條.”

· 田賦)

導氣化之通法門: 政(王·官·用人)·教·學·禮(樂)·刑禁(法·兵)·俗尙(外道·鬼神)·使聘(程途)

氣化經歷門: 各部·沿革

기화생성문은 자연환경에 규정되는 각국의 풍토와 생산물을 이른다. 이에 속하는 강역(疆域)·산수(山水)·풍기(風氣)·인민(人民)·물산(物産) 등은 기화가 만드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교(智巧)나 망상으로써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¹¹⁾

다음으로 순기화지제구문은 그 풍토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나 생업 등을 가리킨다. 의식(衣食)·궁성(宮城)·도읍(都)·문자(文字)·농업(農)·상업(商)·공업(工)·기용(器用) 등이 이에 속하고 기화의 득실을 논한 것으로 기화를 따르면 마땅함을 얻지만, 기화를 어기면 못마땅해진다고 하였다.¹²⁾

세 번째로 도기화지통법문은 앞의 순기화지제구문, 즉 생활문화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질서와 사회제도, 정신문화를 의미한다. 이에 속하는 정치(政)·종교(教)·학문(學)·예법(禮)·형금(刑禁)·속상(俗尙)·외교(使聘) 등은 기화에 어두우면 좋지 못하지만, 기화에 통달하면 좋은 것이 된다고 하였다.¹³⁾

네 번째로 기화경력문은 각부(各部) 즉 나라 안의 지방 또는 식민지 등과 연혁(沿革) 즉 역사를 말하는데, (그 나라 사람이) 기화(氣化)를 제대로 보면 경상(經常)이 저절로 드러나지만, 기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괴상한 것을 숭상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⁴⁾

최한기나 그 선배 격인 홍대용에게 지구(대지가 둥글다는 것)의 발견은 단순히 천문학적 또는 지리학적, 지질학적인 발견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지구의 시각에서 보면 지상 어디에도 중심/변방=중화(中華)와 오랑개(夷狄)는 존재하지 않고, 또 어디든지, 누구나 중심일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와 탈 중심(脫中心)·범중심(汎中心)의 발견이었다.

3. 최제우 최시형의 후천개벽

앞 장에서 본 최한기와 홍대용의 지구개벽이 인식론적이고 주지적(主知的)인 개벽이었다고 한다면 수운과 해월의 ‘다시개벽’, ‘후천개벽’은 가치론적이고 정신적인 개벽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수운이 득도하고 나서 사람에는 존비(尊卑)·귀천(貴賤)이 있기 마련이라는 차등적(差等的)·계층적(階層的) 세계관을 타파하려 했다.

수운은 집에 있던 두 여종을 신분 해방하고 한 명을 아들의 아내로, 다른 한 명을 양녀로 삼았다. 또 수운 생전부터 만들어진 접(接)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교도들 사이에서 귀천의 차등이 없었다고 한다.

하나같이 귀천의 차등을 두지 않고 백정과 술장사들이 어울리며 얹은 휘장을 치고 남녀가

11) 『地球典要』 凡例, “疆域·風氣·人民·物産. 氣化之生成. 不可以知巧增減. 不可以妄想變改.”

12) 『地球典要』 凡例, “衣食·宮城·文字·歷·農·商·工·器用. 順氣化之諸具. 違氣化則失宜. 合氣化則得宜.”

13) 『地球典要』 凡例, “政(王·官·用人)·數·學·禮·刑禁·法·兵·俗尙·外道·鬼神·使聘(程途). 導氣化之通法. 昧氣化則不善. 達氣化即得善.” (양보경, 「최한기의 지리사상」, 『진단학보』 81.)

14) 『地球典要』 凡例, “各部沿革 氣化之經歷 見氣化則經常自著 不見氣化則只尙怪誕”

뒤섞여서 흠어미와 흠아비가 가까이하며 재물이 있든 없든 서로 돕기를 좋아하니 가난한 이들은 기뻐한다.¹⁵⁾

이것은 동학에 반대하던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들이 유림(儒林)에 돌린 통문 중의 한 구절인데 그런 만큼 오히려 초창기 동학이 사회적으로 차별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동학 주문에도 있는 ‘시천주(侍天主)’ 즉 모든 사람은 속으로 한울님이라는 고귀한 것을 모시고 있다는 믿음이 못사람은 평등하게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시각을 가능케 했다.

수운이 단서를 연 이러한 시천주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바로 해월 최시형이다. 그는 “만물은 시천주가 아님이 없다(萬物莫非侍天主)¹⁶⁾” 라고 하듯이 ‘시천주’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이거나 사물에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인간과 만물은 함께 시천주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내(해월)가 청주(淸州)에 다녔을 때 서택순 집에서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리가 들렸다. 서군에게 묻기를 “저기 누가 베를 짜는 소리냐?” 서군(徐君)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 며느리가 베를 짜고 있습니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자네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리라고 하는데 정말 자네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리냐?” 서군은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어찌 유독 서군뿐이겠는가, 도인 집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왔다 하지 말고 한울님(天主)이 강림(降臨)하셨다고 해야 한다.¹⁷⁾

해월은 문인 서택순의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사람이 곧 한울님으로 보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쳤다. 또 어머니들에게는 “도인 집안의 부인은 경솔하게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바로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한다. 도인 집안의 부인이 한울님이 두려워하고 기운을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솔하게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간절히 바라건대 아이를 때리지 말라.”¹⁸⁾ 라고 당부했다.

더 어떨 때 김낙삼(金洛三)이라는 문인이 남계천(南啓天)이라는 사람은 본래 토착 양반(土班)이 아니었는데 (백정 출신이라고 한다) 입도한 후 남계천에게 편의장(便義長)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기고 (전라도의) 도인들을 거느리게 하였더니 도인들에 실망하는 자가 많다고 하면서 남계천의 편의장 첩지(帖紙)를 거두어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해월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해월은 “이른바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다. 도의 직책을 임명하는 것은 한울님이 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한울님이 정하심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리고 적서(嫡庶) · 반상(班常)의 차별은 이 나라의 큰 병폐라고 지적하면서 “이 세상 사람은 모두 한울님이 낳으신 사람이니 한울 사람(天民)으로 공경한 연후에야 가히 태평(太

15) 鄭允愚·柳厚祚, 『玉山書院 癸亥十二月初一日 通文』: 一貴賤而等威無別, 則屠沽者往焉. 混男女以帷薄爲設, 則怨曠者就焉. 好貨財而有無相資, 則貧窮者悅焉.” (표영삼,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 p. 271-276 참조)

16)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萬物莫非侍天主.

17)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余過淸州徐垞淳家. 聞其子婦織布之聲. 問徐君曰 “彼誰之織布之聲耶.” 徐君對曰 “生之子婦織布也.” 又問曰 “君之子婦織布. 眞是君之子婦織布耶.” 徐君不卞吾言矣. 何獨徐君耶. 道家人來. 勿人來言. 天主降臨言.

18)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道家婦人輕勿打兒. 打兒卽打天矣. 天厭氣傷. 道家婦人不畏天厭氣傷而輕打幼兒則. 其兒必死矣. 切勿打兒.

平)이라 할 수 있다.”라고 타일렀다.¹⁹⁾

이처럼 해월은 여러 가지 기회에 여성이나 어린이, 천민 등 봉건 체제하에서 억압되고 폄훼되었던 사람들 또한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의 주체로서 공경해야 하고,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해월은 “인어(人語)가 곧 천어(天語)이며 조성(鳥聲)도 역시(亦是) 시천주(侍天主)의 성(聲)이니라.”²⁰⁾라고 하듯 인간 이외의 생물도 시천주의 주체라고 했다. 그것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은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의 이른바 ‘삼경(三敬)’의 사상이다. “경천(敬天)함으로써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의 전적이체(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고, “경절(敬天)은 경인(敬人)의 행위(行爲)에 의지하여 사실(事實)로 그 효과(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사람은 사람을 공경(恭敬)함으로써 도덕(道德)의 극치(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物)을 공경(恭敬)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天地氣化)의 덕(德)에 합일(合一)”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²¹⁾

특히 중요한 것은 ‘이천식천(以天食天)’ 즉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는 설법이다.

내 항항(恒常) 말할 때에 물물천(物物天)이요 사사천(事事天)이라 하였나니, 만약(萬若) 이 이치(理致)를 시인(是認)한다면 물물(物物)이 다 이천식천(以天食天) 아님이 없을지니, …… 만일(萬一) 한울 전체(全體)로 본다 하면 한울이 한울 전체(全體)를 키우기 위(爲)하여 동질(同質)이 된 자는 상호부조(相互扶助)로써 서로 기화(氣化)를 이루게 하고, 이질(異質)이 된 자(者)는 이천식천(以天食天)으로써 서로 기화(氣化)를 통(通)하게 하는 것이니…….²²⁾

즉 “사물마다 한울님(物物天)“이고, ”일마다 한울님(事事天)“이므로 사물마다 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다(以天食天)는 것이다. 해월에 의하면 한울은 질을 같이 하는 자는 상호부조로 기화를 이루고, 질을 달리하는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 전체를 키운다고 한다. 이러한 한울(하늘, 天) 이해는 다른 동양사상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지만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E. Lovelock, 1919-2022)이 제시한 가이아 이론(Gaia theory, 혹은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을 연상케 한다. 이는 생물이 지구와 서로 관계하면서 자기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이론(가설), 또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일종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가설이다. 가이아 이론 자체는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그 목적론적 성격이 비판받았으나 (한편으로 지구를 가이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은 신비주의자와 창작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러브록이 제시한 시점은 지구 시스템 이론에 비판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해월이 제시한 ‘한울님’은 한쪽으로는 (개별적) 한울이 (개별적) 한울을 먹음으로써 (전체) 한울이 유지되는, 즉 수많은 생물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지되는 지구생태 시

19) 『海月神師法說』, 「布德」:金洛三曰 “全羅道有多發. 布德之情. 南啓天本是非土班. 入道後. 以南啓天便義長之重職. 統率道衆. 道衆落心者多矣. 願撤回南啓天便義長之帖紙爲望耳.” 神師曰 “所謂班常之別. 人之所定也. 道之職任天主之所使也. 人豈可以能天定之任撤回乎. 唯天無別班常而賦其氣寵其福也. 吾道輪於新運而使新人. 更定新制班常也. 自此以後. 吾道之內一切勿別班常. 我國之內. 有兩大弊風. 一則 嫡庶之別. 次則班常之別. 嫡庶之別亡家之本. 班常之別亡國之本. 此是吾國內痼疾也. 吾道頭目之下. 必有百勝之大頭目. 諸君愼之. 相互以敬爲主. 勿爲層節. 此世之人. 皆是天主生之. 以使天民敬之以後 可謂太平也.”

20) 『海月神師法說』, 「天語」

21) 『海月神師法說』, 「三敬」

22) 『海月神師法說』, 「以天食天」

시스템적인 한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해월은 기를 같이하는 자가 서로 돕는 상호부조도 강조하고 있다. 이천식천의 생태적, 시스템적 측면과 상호부조의 윤리적 측면의 양쪽을 가진 점이 해월이 제시한 ‘한울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래 우리는 ‘약육강식(弱肉強食)’, ‘생존경쟁(生存競爭)’, ‘적자생존(適者生存)’, ‘우승열패(優勝劣敗)’ 등의 용어로 표상되는 (통속) 진화론 또는 사회진화론적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 왔다. 심지어 그러한 세계관이야말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인식으로 믿어 왔다. 그 결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남을 이기려 하고 약자를 패배자로 무시하는 냉혹하고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살기 힘들고 괴로운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위 키워드 중 ‘약육강식’은 원래 다윈과도 진화론과도 무관한 말이었다. 이것은 당나라의 문인 한유(韓愈, 768-824)가 쓴 「송부도문창사서(送浮屠文暢師序)」에서 유래한 말이다.

무릇 새가 고개를 숙여서 먹이를 쪼아 먹다가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짐승이 깊은 굴에 숨어 살다가 가끔만 밖에 나오는 것은 다른 동물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지금 나와 문창(文暢) 스님이 평안하게 거처하고 한가롭게 식사하고 여유롭게 살다가 죽는 것은 금수와 사슴 다른데 어찌 그 까닭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²³⁾

여기서 “약지육(弱之肉), 강지식(強之食)”이 바로 ‘약육강식’의 유래다. 그런데 한유는 여기서 분명히 금수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의 고기가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지만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문맥에서 그것을 말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금수와 인간을 구별하는 말이었다 약(지)육강(지)식이 언제 어떻게 진화론의 키워드로 변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 하지만 원래 금수의 세계만의 일인 ‘약육강식’은 어느새 자연계와 인간세계를 포괄하는 법칙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신자유주의적인 무한경쟁, 국제사회의 제국주의,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학의 ‘시천주’ 사상,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월의 ‘이천식천’의 자연관 · 우주관은 ‘이천식천’과 ‘상호부조’가 양립하는 세계 인식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물든 통속 진화론 또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극복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기후변동을 비롯한 지구 환경의 대변동은 이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의 극우화, 차별주의가 확산하면서 자국(민) 중심주의, 반세계주의, 반이민과 배외주의, 인종주의, 여성혐오, 반LGBTQ 등의 반다양성, 반평등주의 풍조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반 백신 등의 반과학주의, 음모론 등도 득세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구적 근대화의 부정적 측면인 자국 (또는) 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등이 근대의 긍정적인 측면인 자유, 평등, 인권, 과학을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한국 근대의 ‘개벽’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개벽’은 동학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수운 최제우와 해월 최시형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

23) 韓愈, 「送浮屠文暢師序」: 夫鳥俛而啄, 仰而四顧。夫獸深居而簡出, 懼物之爲己害也。猶且不脫焉, 弱之肉 強之食。今, 吾與文暢安居而暇食, 優游以生死, 與禽獸異者, 寧可不知其所自邪。

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다른 측면에서 ‘개벽’을 말했다. 혜강 최한기는 마젤란 함대의 선장인 엘카노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온 것을 가리켜 ‘천지의 개벽’이라고 평가했다. 그것으로 인해 지구상의 동서남북이 항로로 맺어지고 인류의 활동이 지역 규모에서 지구 규모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지구’의——대지가 동굴의——발견은 인류가 지구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온 존재라는 발견이기도 했다.

최한기의 선배 격의 실학자 홍대용은 먼저 지구설을 수용하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제대로 된 세계이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은 틀리고 이상하게 살고 있다고 여기기 쉬우나 기실 지구의 시각에서 본다면 모두 바르게 서 있다는 비유를 들어서 지구상 어디에도 중심은 없고, 또 어디든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나아가 그는 사람(사물)의 눈으로 보면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제시하면서 하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사람도 사물조차 높낮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수운, 해월이 설파한 동학에 있어서 ‘개벽’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시천주(侍天主)’ 즉 누구든 한울님이라는 귀한 것을 모시고 있기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론적 전환에 있다고 생각된다.

수운 생존 당시 동학의 접(接) 안에서는 남녀,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존중받고 서로서로 돕는 평등주의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해월은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여성, 어린이, 천민도 한울님을 모시는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심지어 사람 아닌 사물까지도 시천주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하늘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까지 공경해야 천지기화(天地氣化)의 덕(德)에 합일(合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의 교설이다. 해월은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해 동질(同質)한 자는 상호부조(相互扶助)로써 서로 기화(氣化)를 이루게 하고, 이질(異質)한 자는 이천식천(以天食天)으로써 서로 기화(氣化)를 통(通)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울 전체가 서로서로 돕는 ‘상호부조’와 (개별적인) 한울로서 (개별적인) 한울을 먹는 ‘이천식천’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천식천의 설은 오늘날 지구 시스템 이론에 영향을 미친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해월의 한울이 상호부조를 내포하고 있는 점은 근현대의 사회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통속적인(사회) 진화론적 사고방식, ‘약육강식’ ‘생전경쟁’을 절대화하는 세계관을 극복할 시점을 제공해 준다.

【참고문헌】

『龍潭遺詞』

『神氣通』

『推測錄』

『鑿山問答』

『地球典要』

『海月神師法說』,

韓愈, 「送浮屠文暢師序」

표영삼,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

https://wpb.shueisha.co.jp/news/society/2025/09/02/128165/?fbclid=IwY2xjawNFf7tleHRuA2FlbQlXMQBicmlkETfNd3VPZXlCblljSFJFSUpwAR6hHl62cjbL2qjQ5Yzs8-uj6myZr-BZnHSP2JXLRPVbR58NU3_Mfw2QQGuthA_aem_aX188-Owvz-MDkUkZlAWIQ